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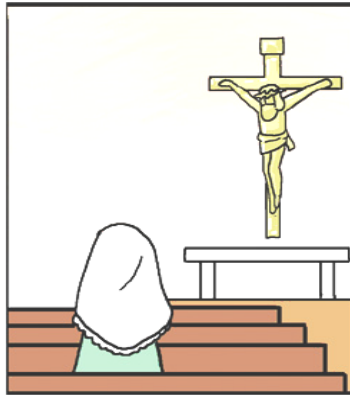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근)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외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기도...
청하기보다
음성을 듣는 것.



믿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버리기.



[제 1독서] 사도 14,21-27

[화답송] 시편 145(144),8-9.10-11.12-13-14(◎ 1 참조)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려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제 2독서] 묵시 21,1-5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음] 요한 13,31-33-34-35

성가	8시 미사	입당 132	봉헌 46	성체 197	파견 130
	11시 미사	입당 135	봉헌 46 219	성체 152 169	파견 480

주일 전례 봉사

구분	부활 제5주일(4월 28일)		부활 제6주일(5월 5일)		주님승천대축일(5월 12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바로(명국)	허세실리아(홍숙)	정스텔라(애리)	황테레사(혜정)	김안토니오(휘)	이마리크레센시아
제 1 독서	강요한(신호)	최다니엘(대연)	이바로(명국)	심미카엘(태규)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서테레사(춘애)	김안토니오(휘)	심헬레나(승화)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보편지향기도						

오늘의 강론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단도직입적인 질문인가요? 사실 세상에 사랑이란 말만큼 흔한 것도 없습니다. 각종 글과 시와 노래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면 아마도 제대로 작품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없는 듯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은 생각이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실천은 반드시 자기희생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13,34-35)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모든 것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왜 굳이 **새 계명**이라고 언급하셨는지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계명으로만 존재하던 사랑을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며, 또한 원수까지를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사랑을 말씀하셨기에 구약성경의 사랑의 계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13,35)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 것처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뜬구름 잡는 식의 그 무엇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과연 초대 공동체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지요?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아멘.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청소년부 안내

1. 부활 제 5주일

- 주일학교 11시
- 영어미사 12시 반

2. 교사 소개 : Justin Lee 선생님(7, 8thgrade)

My name is Justin Inkuk Lee and I am currently a Sunday School Teacher for the 7-8th grade level. I have been a member of the St. Andrew Kim church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to which many of you may recognize me as the young cheeky kid blabbering on and on in mass with a group of cousins. It has been my pleasure to work with your children in better grasping the Catholic Church and faith. In working with them, they have allowed me to remain active in my own faith and personal journey to please Him. Having graduated from college and working in San Francisco, the Oakland church and community acts as an outlet for me to be more spiritually in tune-again, it is thanks to the students that I can reaffirm my faith and convictions and give every moment of mine to God(and this is something that I am forever in debted to). As I attempt to dedicate my whole being exclusively to his service, I can only hope that my thoughts and actions will carry out to our beautiful youth today and be awakened.

3. Fr. Arjen 께서 6월 20일까지 유럽으로 성지순례를 떠나셨습니다. 돌아오시기 전까지 우리성당 영어미사를 집전해주실 신부님들 안내입니다.

- 4/21 : Fr. Samuel
- 4/28(오늘) : Fr. Nguyen
- 5/5 : Fr. Samuel
- 5/12 : Fr. Nguyen

4. 주일학교 **Grace Market**

- 5/12 주일학교 수업 시간 중

5. 교사/보조 교사 모집(2013년 가을학기)

- 모집 대상: 학부모님, 대학/대학원생(비영어권)
- 초등학교 저학년반(Pre-k 반, Kinder-1학년 반)
: 우선 모집 0명
- 청소년부장에게 연락주세요
sjbaek(at)gmail.com

6. 주일학교 여름 방학 행사(계획 중)

- 영어미사(12시반)
- 음악교실(매 주일 11시): 신앙의 해 주제가
(작곡: 김 로사) 한국어로 합창 배우기 외
기타 프로그램

7. 여름 성경 학교 토요일 (4주간)

** 자세한 여름방학 계획은 확정되는 대로 차차 주보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주일학교 학부모 피정

- 날짜 : 미정, 장소 : 성당
- 주제 : 신앙과 자녀교육
- 지도 : 본당 신부님

9. 인터넷 정보

- 소식지: <http://goo.gl/x8azm>
- Twitter: @StAndrewKimYM

생명의 말씀

나는 너희에 새 계명을 주겠다.

오래전 선배 신부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당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 일찍부터 매일같이 새벽미사에 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성당의 여러 봉사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성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살아 있는 성녀’ 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본당 신부님은 할머니의 장례미사를 치르고 난 후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성당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 할 만큼 열성적인 신앙인이었으니 며느님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예비자 교리에 나오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흔들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신부님,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싫습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당에 나가게 되면 죽어서 천국에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생각만 해도 정말 싫습니다.”

집 밖에서는 모든 이의 귀감이 되었던 그 할머니가 정작 함께 살고 있던 며느리에게는 그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봉사의 행위는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는 말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말씀은 없지만, 이것만큼 실천이 어려운 말씀도 없습니다. 미움과 증오에 빠지기 쉬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의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질 때에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1요한 3, 18)

말처럼 쉬운 것은 없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며 거짓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의 마음과 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어떤 사랑의 행위라도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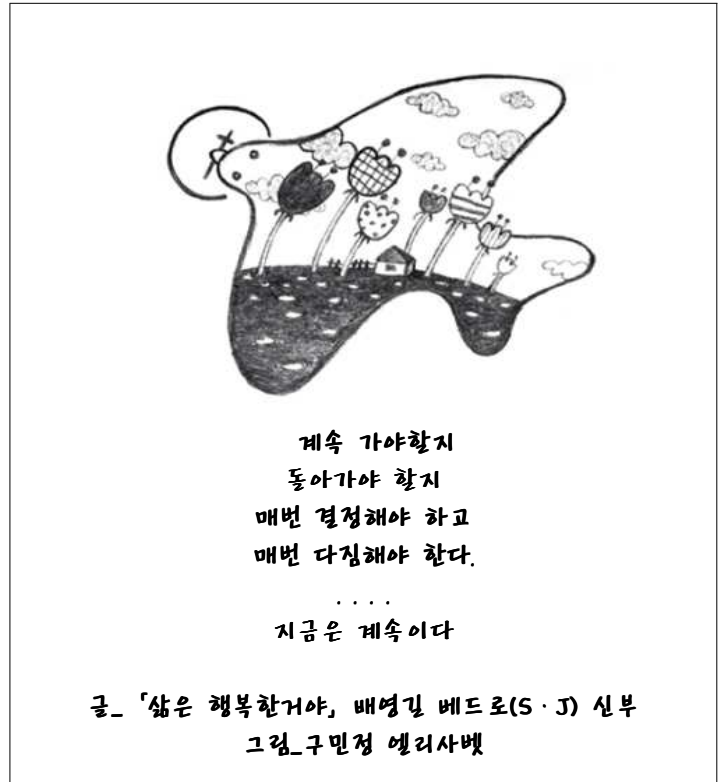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강요되는 계명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이 우리와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의 삶,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 13,35)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행동하는 사랑’ 이기 때문입니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교 신자는 싫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말씀의 향기

확신과 안정

우리는 확신과 안정을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나 자신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 가는 길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길이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내가 바라는 만큼의 안정과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많이 고민하는 부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학교라는 보호막을 벗어난 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안정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확신이나 안정과는 관계없이 자유로운 꿈을 꾸기도 하지만, 힘들어진 국내외 경제는 젊은이들의 취업을 더 힘들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새로운 일과 책임, 환경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며 생활합니다. 인문학 강의를 하는 어느 교수님은 '경계의 불안함과 모호함을 건디는 것이 용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함과 모호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그 상태를 잘 살아내는 것이 가치 있는 일' 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불안함과 모호함의 표본인 삶을 사신 분이 아닐까요? 하느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셨고, 유대인이면서 이방인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이면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셨을까요? 그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셨을까요?

가난한 이, 병든 이, 마귀 들린 이들을 도와주시고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불안과 불 확신의 고통 안에서 제자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쩌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불안과 불 확신으로 점철된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확신이 아닌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은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청년기를 우리와 똑같이 보내셨고, 그 시대의 아픔과 불안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 이해하시겠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하는 일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불 확신과 모호함의 경계를 살 용기도 부족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 가장 확실하게 계신 주님을 믿고, 때론 모호함 속에서, 때론 불안해하면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유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는 확실하게 들어 주실거죠?

이소은 마리아 / 가수, 변호사

머무름

태아와 말기 환자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문화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자유 개념을 드러내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강자의 자유가 되고 맙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19항 참조-

가톨릭전례

저에게 십자가는 무겁고 힘든 의미로 다가오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분명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느님 나라에 가는 유일한 길로 죄수들을 처형하는데 사용했던 십자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고 싶으셨을 정도로 끔찍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이니, 하물며 우리는 어떨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내리시는 잔을 갓세마니 동산에서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612항 참조)

병으로 심하게 고통 받고 신음하는 자식의 회복을 위해 온 밤을 지새우며 돌보는 어머니의 희생을 누가 고생이라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였고, 아들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필리 2,8 참조) 잃었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스도는 힘없이 실패했다고 비웃습니다. 죽음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뒤따르겠다고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어리석음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1코린 1,25)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이제 십자가는 더 이상 죽음을 상징하는 어둡고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초대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희망이고 사랑의 절정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하느님과 화해시키고 일

치시키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613항 참조) 세상의 문명은 눈부실 정도로 발달하여 겉으로는 화려함을 뽐내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이루어야 할 목표나 행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함을 풍기지만 그 뒷맛은 몹시 쓴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 나라의 좁은 문을 열어 주는 열쇠가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지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으며, 하와의 불신과 교만함을 치유하기 위해 마리아의 믿음과 겸손함이 십자가 아래 언제나 함께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이외에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어졌다.” (요한 19,30)를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이세상의 어려움에 좌절할 때마다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울려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참고: 가톨릭교회 교리서/
600-601항, 604-607항, 610-623항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연	지향	봉헌자
4월 28일 일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임그레고리오(재선)	가족
	연	한다윗(홍석)	한수산나(서연)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최마틸다	한발레리아
	연	계선명	조요안나
	연	이마리아(옥임)	차리디아(영화)
	생	권카타리나	임루시아
	생	김카타리나(윤영)	김아네스
	생	한울리안나(혜정)	찬미성가대
	생	정카타리나(경희)	찬미성가대
	4월 30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연		서라이문도	가족
5월 1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5월 2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신철기	신미카엘라
5월 3일 금	생	이요셉	이막달레나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서라이문도	가족
	연	요시주쿠 카와키타	신미카엘라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5월 4일 토	연	서라이문도	가족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0	221	55	356
헌 금	\$490	\$1,452.61	\$60.50	\$2,003.11

< 교무금 > \$1,475

조상희(4) 정일양(4) 염명련(4) 이미영(4)
서춘애(4) 조우송(5) 윤성진(1-4) 임승원(3-4)
이병렬(4) 김영길(3-4) 양우선(3-4) 조정학(3-4)
성동화(4)

< 성소후원금 >

서춘애(4)

< Bishop's Appeal >

서춘애(5-6)

< 성모의 밤 > 권보미 \$20 임희숙 \$100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지난주	금 주	누 계
약정액	\$311,015.28	-	\$311,015.28
봉헌금	\$291,545.28	-	\$291,545.28

*약정자 : -

*금주봉헌자 : -

*총 230세대 중 185세대가 약정해 주셨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전례안내

* 성시간 : 5월 2일(목)

◆ 지속적인 성체조배

5월 3일(금) 저녁 9시부터 5월 4일(토) 아침 7시까지

◆ 성모의 밤 미사 : 5월 4일(토) 저녁 8시

* 아침미사는 없습니다.

* 꾸리아월례회 : 5월 11일(토) 아침미사 후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봉헌을 준비해 주십시오.

* 단체별 꽃봉헌은 각 단체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 성모의 밤 개인 꽃봉헌을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 2차 현금 안내

4월 28일(오늘) : Catholic Home Missions Appeal

◆ 모임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성경공부 : 매월 첫째주일/셋째주 금요일 저녁 7시반

- 기도모임 : 매주일 10시 ~ 10시 40분 1회의실

* 사목회의 : 4월 28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마리아회 : 5월 5일 교중미사 후 106호실

* 프란치스코회 : 5월 5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신앙의 해를 위한 성인교리반

시작 : 5월 21일(화) 저녁 미사 후(약 6개월간)

◆ 북가주 한인 천주교 연합 골프대회

일시 : 5월 18일(토) 오후 12시 반(샷건)

장소 : Metropolitan Golf Links

10051 Doolittle Dr. Oakland

참가비 : 남자개인 \$90 여자개인 \$80 부부 \$150

문의 및 접수 : 변귀태 성우안토니오 707-696-7743

4월 구역모임 지에서 17-18강

2 구역	4월28일(일) 6시	배짚마 덕
5 구역	4월28일(일) 미사후	대건회관
10 구역	4월28일(일) 미사후	교육관 106호

◆ 북가주 ME 25차 첫 주말

일시 : 7월 5일(금) ~ 7월 7일(일) 2박 3일

장소 : 산다미아노 피정센터(댄빌 소재)

문의 : 한치용 요셉/한현자 헬레나 415-810-3175

◆ 2013 FIAT 장학금 프로그램

신청자격 : 북미주 거주 한인 가톨릭 학생(고등학교 12, 대학생, 대학원생)으로서 소속 본당이나 지역 신앙 공동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자

신청마감 : 5월 31일

신청서 다운로드 : FIAT 웹사이트(www.flat.org)

신청문의 : fiat@fiat.org, 714-702-9830

◆ 엄철기 힐라리오 형제님께서 본당에 탁구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국학교 소식

* 2013년 가을 학기 기초반 교사 모집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ikkim324@yahoo.com